

영광의 얼굴들 수상 한마디▶▶▶

각 종목별 선수들의 투표를 뽑는 동아스포츠대상은 대한민국 5대 프로스포츠 종목(야구, 축구, 농구, 배구, 골프)의 최고 스타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시상식이다. 올해의 선수는 물론이고 각 프로단체의 수장과 이전 수상자 등 체육인들이 함께한 뜻 깊은 축제의 장이었다. '별 중의 별'로 선정된 스타들은 각기 다른 개성을 뽐내며 시상식을 더욱 빛냈다.

프로야구 김재환 (두산)

"다양한 종목의 최고 선수들이 모인 자리에서 동료들이 뽑은 상을 받아 더욱 의미가 있다. 항상 겸손하게, 최선을 다하는 선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좋은 상을 주신 것에 항상 보답하는 선수가 되도록 노력하고 싶다."



정운찬 KBO 총재(시상자), 프로야구 올해의 선수 김재환, 지난해 수상자 양현종(이하 왼쪽부터).

프로축구 이용 (전북)

"뜻 깊은 상을 받게 해준 팀 동료, K리그 동료들에게 진심으로 고맙다. 백승권 단장 이하 구단 직원들께도 감사함을 전한다. 앞으로도 K리그에 많은 사랑을 주셨으면 좋겠다. 상금은 1년 내내 고생한 구단 직원, 소속에서 일해주시는 이모님, 아버님들을 위해 쓰겠다."



한홍수 한국프로축구연맹 사무총장(시상자), 프로축구 올해의 선수 이용, 2010년 수상자 김은중.

남자프로농구 오세근 (KGC)

"침체기인 농구가 발전할 수 있도록 농구선수로서 조금 더 힘내고 열심히 하겠다. 지난해 12월 11일에 막내 아이가 태어나 시상식에 불참했다. 오늘이 아이의 생일이다. 시상식장에도 함께 왔다. 아내가 세 아이 키우느라 고생이 많다. 너무 미안하고 고맙다."



이정대 KBL 총재(시상자), 남자프로농구 올해의 선수 오세근, 2013·2015·2016년 수상자 양동근.

여자프로농구 박혜진 (우리은행)

"동아스포츠대상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뜻 깊은 해에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투표해주신 동료 선수들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한다. 이 상에 걸맞도록 열심히 하고, 코트 안밖에서 모범이 되겠다. 4년 연속 수상인데 내년에도 이 자리에 서고 싶다."



이병완 WKBL 총재(시상자), 여자프로농구 올해의 선수 박혜진, 2011년 수상자 김정은.

“미국 가기 전 좋은 기운 받아가요”

여자프로골프 올해의 선수 이정은

“수상자 선배들 LPGA서 성공적 데뷔
그 기운 받아 좋은 모습 보여드릴 것”
내년 KLPGA 주요 대회 출전 약속도

미국 여자프로골프 (LPGA) 투어 진출을 앞둔 이정은(6/22·대방건설)의 올 연말 마지막 선물은 비범한 기(氣)가 담긴 올해의 선수상 트로피였다.

이정은은 11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CMS와 함께하는 2018 동아스포츠대상'에서 여자프로골프 올해의 선수상을 품었다. 올 시즌 한국여자프로골프 (KLPGA) 투어 상금왕과 평균타수상에 이어 세 번째 개인 트로피를 안은 '핫시스'는 뜻 깊은 자리에 직접 참석해 희망찬 내일을 이야기했다.

동아스포츠대상 여자프로골프 부문은 그간 미국 진출의 교두보처럼 여겨졌다. 2009년 초대 수상자인 서희경이 2년 뒤 LPGA 투어로 떠나면서 포문을 열었고, 이어 2013년 김세영, 2014년 김효주, 2015년 전인지, 2016년 박성현이 동아스포츠대상을 품고 미국 대륙에 안착했다.

특히 김세영, 전인지, 박성현은 2015년부터 3년간 LPGA 투어 신인왕에 차례로 등극하면서 동아스포츠대상의 품격을 더욱 높였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동아스포츠대상을 수상한 이정은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정은은 “최근 5년간 무려 4명의 선배들이 동아스포츠대상을 안은 뒤 미국으로 떠나 성공적인 데뷔 시즌을 보냈다. 나 역시 선배들의 기(氣)를 받아 내년 LPGA 투어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다짐했다.

지난달 LPGA 투어 Q시리즈를 수석 통과하면서 내년도 풀시드를 얻은 이정은은 요새 새 시즌 준비에 한창이다. 그간 밀어둔 휴식을 취하면서도 틈틈이 미국에서의 새 삶을 그려나가고 있다.

새로운 도전은 곧 익숙한 것과의 작별을 뜻한다. 이정은은 지난 3년간 자신의 KLPGA 투어 생활을 도운 소속사(크라우닝)와 이별하고, 최근 새로운 에이전시(브라보앤뉴)와 매니지먼트 계약을 맺었다. 2018동아스포츠대상 시상식은 이정은과 기존 소속사 직원들이 함께한 마지막 공식 행사였다.

이정은은 “KLPGA 투어에 데뷔하면서 소속사 식구들의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다. 이제 새로운 가족들을 만나게 됐는데 팬들의 기대의 부응할 수 있도록 새 소속사와 함께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은은 당분간 가족들과 휴식을 보내면서 남은 연말을 지낼 예정이다. 내년 1월 중순 해외전지훈련을 시작하면서 LPGA



미국 진출을 앞둔 이정은(6)이 올 연말 뜻 깊은 선물을 받고 활짝 웃었다. 11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CMS와 함께하는 2018 동아스포츠대상'에서 여자프로골프 부문 올해의 선수상을 차지한 이정은은 “앞선 선배들처럼 동아스포츠대상의 기(氣)를 이어받아 성공적인 LPGA 투어 데뷔 시즌을 보내겠다”고 다짐했다.

김진환 기자 kwangshin00@donga.com

투어 데뷔를 본격적으로 준비한다.

최근 인기를 자랑하듯 이날 다수의 시상식 참석자들로부터 사진과 사인 요청을 받은 이정은은 “대선배이신 강수연(42) 프로 넘게서 시상자로 함께해주셨다. 수상자이자 후배로서 정말 감사드린다. 앞서 미국과 일본 무대를 밟아보신 경험담도 많이

들을 수 있었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그는 “올해 팬들로부터 너무나 많은 사랑과 응원을 받았다. 새해에는 미국으로 떠나지만 내년에도 KLPGA 투어 주요대회에 출전하면서 국내 팬들께 꾸준히 인사를 드리겠다”고 연말 인사를 남겼다.

고봉준 기자 shutout@donga.com

‘KBO MVP’ 김재환, 동료들 인정도 받았다

프로야구 올해의 선수 김재환

국내 정상급 실력을 검증한 김재환(30·두산 베어스)을 향해 동료 선수들도 엄지를 치켜세우고 있다. 김재환은 '2018 동아스포츠대상'에서 프로야구 올해의 선수 영광을 안았다. 139경기에서 타율 0.334, 44홈런, 133타점을 기록하며 정상급 타자로 도약한 김재환은 이번 겨울 각종 시상식 참여로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다.

기자단이나 팬들의 지지를 넘어서 그라운드에서 함께 땀 흘리는 동료들의 인정까지 받고 있다. 김재환은 전체 50표 중 1위표 25개를 받았다. 총점은 143점으로 2위 박병호(넥센 히어로즈·62점)를 두 배 이상의 점수 차로 따돌렸다. 투표인단에 포함됐던 이대호(롯데 자이언츠), 박병호, 최형우(KIA 타이거즈), 강민호(삼성 라이온즈), 한동민(SK 와이번스) 등 국내 정상급 타자들도 올해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로 김재환을 뽑았다.

전년도 수상자이자 이날 시상자로 나선 양현종(KIA)은 “15년 지기” 김재환의 수상을 누구보다 기뻐했다. 양현종과 김재환은



2018년을 자신의 해로 장식한 김재환이 동아스포츠대상 프로야구 올해의 선수상을 받은 뒤 소감을 밝히고 있다.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중학교 때부터 친분을 쌓았다. 같은 지역이 아니었지만 친해졌을 만큼 서로 잘 통했다. 김재환이 유급한 탓에 프로입단이 1년 늦었지만 친분은 여전했다. 김재환도 “시상자가 (양)현종이라 더욱 기쁘다”고 뿌듯해했다. 시상식 내내 김재환 곁을 떠나지 않았던 양현종은 “동아스포츠대상은 선수들이 직접 주인공을 뽑는다. 때문에 지난해 수상했을 때 정말 기뻐다”며 “(김)재환이는 워낙 잘하는 선수 아닌가. 받을 사람이 받았다고 생각한다.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라고 치켜세웠다.

최익래 기자 ing17@donga.com

동아스포츠대상 역대 수상자

연도	야구	축구	농구		배구		골프		특별상
			남	여	남	여	남	여	
2009	김상현	이동국	김주성	신정자	박철우	김연경	배상문	서희경	
2010	이대호	김은중	함지훈	정선민	석진욱	양호진	김경태	이보미	양궁대표팀
2011	윤석민	이동국	문태종	김정은	여오현	김사나	김경태	김하늘	
2012	박병호	하대성	오세근	신정자	곽승식	김해란	김대섭	김하늘	양학선
2013	박병호	김신욱	양동근	신정자	문성민	양호진	류현우	김세영	류현진
2014	서건창	이동국	문태종	이미선	곽승식	김희진	김승혁	김효주	
2015	박병호	염기훈	양동근	박혜진	서재덕	이효희	이수민	전인지	김민식 감독
2016	최형우	정조국	양동근	박혜진	문성민	김희진	최진호	박성현	박세리
2017	양현종	이재성	오세근	박혜진	문성민	김해란	최진호	이정은6	이승엽
2018	김재환	이용	오세근	박혜진	정지석	박정아	박성현	이정은6	신지애

이동국·오세근·양동근·문성민 ‘3회 수상’ 영예

동아스포츠대상 10년의 발자취

국내 5대 프로스포츠, 8개 종목을 시상하는 동아스포츠대상은 한 자리에서 한꺼번에 각 종목 최고 스타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시상식이다. 아울러 선수들이 직접 뽑는 독특한 투표 방식과 함께 프로스포츠를 망라한다는 점에서 ‘품격의 대상’으로도 불린다. 2009년 첫 시상식 이후 올해 10번째 행사가 11일 성대하게 열렸다. 지난 10년간 이상을 거쳐 간 스타들의 면면을 보면 국내 프로스포츠의 흐름을 읽을 수 있다.

야구는 올해 김재환을 비롯해 이대호(2010년) 박병호(2012, 2013, 2015년) 최형우(2016년) 등 KBO리그를 대표하는 거포들이 영광을 안았다. 축구는 전북에서 제2의 전성기를 구가한 이동국이 세 차례(2009, 2011, 2014년) 수상하며 동아스포츠대상과 기본 좋은 인연을 맺었다. 남자농구는 오세근(2012, 2017~2018년)과 양동근(2013, 2015~2016년)이 나란히 세 차례 수상하며 쌍벽을 이룬 가운데 문태종(2011, 2014년)의 활약도 돋보였다. 여자농

구는 신정자(2009, 2012~2013년)가 주를 잡던 무대를 박혜진(2015~2018년)이 4회 연속 수상하며 바통을 이어받은 모양새다.

남자배구는 문성민(2013, 2016~2017년)이 최다 수상자이고, 여자배구는 양호진(2010, 2013년)과 김해란(2012, 2017년) 김희진(2014, 2016년)이 번갈아 트로피를 받았다. 남자골프는 김경태(2010, 2011년)와 최진호(2016~2017년)가 나란히 두 차례씩 수상했고, 여자골프는 이정은(2017~2018년)이 2년 연속 수상하며 대세로 자리 잡았다. 특히 여자골프는 수상자가 미국행(LPGA)을 선택하는 수순처럼 굳어져 눈길을 끈다. 김세영(2013년)을 비롯해 김효주(2014년) 전인지(2015년) 박성현(2016년) 등이 국내 평정 이후 LPGA에서 돌풍을 일으켰는데, 이정은도 내년 시즌 미국 무대에 데뷔한다.

한편 특별상은 총 7차례 선정됐다. 양궁 대표팀(2010년)에 이어 양학선(2012년·체조) 류현진(2013년·야구) 김민식 감독(2015년·야구) 박세리(2016년·골프) 이승엽(2017년·야구)에 이어 올해는 신지애(골프)가 수상했다. 최현길 기자 choing2@donga.com